



2022년 5월 1일(제1086호)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본당의 어린 친구에게 물어보아도,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 여쭙어도 “있다.”라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호도에 따른 기호(嗜好)가 있으며 각자가 애착하는 ‘사람’, ‘물건’, ‘대상’이 하나쯤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최근 테니스에 푹 빠져있는데요, 좋아하게 되다 보니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아도 왔다 갔다 하는 연두색 공이 어른거리곤 합니다.

아마도 영화를 좋아하는 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 철학, 또는 ‘O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자주 검색할 것이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는 그들의 노래 가사, 안무 패션 등을 종종 떠올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특히 ‘애정하고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커져 버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에게 마음과 생각의 더 많은 지분을 내어줄 것입니다.

부활 제3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는 요한 복음을 통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하시는 예수님과 그것에 답변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 매 주일 미사에 의무로 참석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충실히 사순 시기를 보낸 후 기쁜 마음으로 부

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만약 이 여정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은 채 그저 습관적이거나, 이성적인 부분에만 중심을 두고 신앙의 길에 참여한 것이라면, 혹여나 의무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까.

큰 환희에 가득 찬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 이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소소하고 때로는 소란한 일상을 살아내면서 자주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가? 관심사를 인터넷에 자주 검색하듯 기도서와 성경, 그리스도교 서적을 펼쳐 뒤적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그분께 내 마음의 많은 공간과 지분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로부터 이어온 신앙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어지는 부활 3주간 동안 주일 복음 말씀을 간직하며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김문경(크리스토스) 신부  
총장(제31보병사단) 생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5,27ㄴ-32.40ㄴ-41

회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 시

묵시 5,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 음

요한 21,1-19

영 성 제 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스무 번째 시한

“왜 왕명을 거슬러 그 종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 “나는 그 교가 참되기 때문에 믿는 거요. 그 교는 천주를 공경하도록 나를 가르치고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저를 고문하게 하였습니다. 관장이 “배교를 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쳐죽이게 하겠소.” 하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천주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내 교의 진리를 듣고 싶으면 들어 보시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 신인 만물의 조물주이시고 상선 별약하시는 분이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게 공경을 드려야 하오. 관장님, 천주님의 사랑을 위해 고문을 받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하오. 그리고 내 천주께서 당신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하여 그 은혜를 갚아 주시기를 기원하오.”

이 말에 관장은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여덟 자 길이의 칼을 제게 갖고 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을 들어 직접 제 목에 찌웠습니다. 좌중의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이미 배교한 두 사공과 함께 옥에 가두었습니다. 저의 손과 발, 목과 허리는 단단히 묶여 있어서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또 저를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밤의 일부를 그들에게 천주교를 설교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관심 있게 들었고 그것이 임금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앓다면 믿을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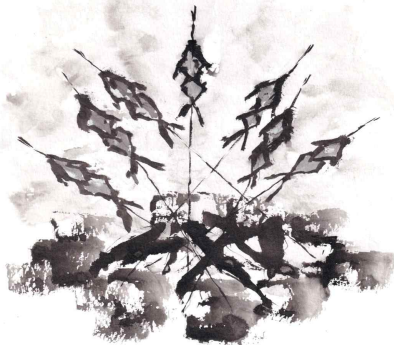
포졸들은 제 보따리에서 중국의 물건들을 발견하였으므로 저를 그 나라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이튿날 관장이 저를 자기 앞에 출두시키고 저더러 중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오. 조선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상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상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새벽에



동트기 전 일어나	그런 분이
불을 피워,	또 계십니다.
밤을 짓고,	
물고기를 구워	우리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 5월 상시집 목상글

복음 낭독: 루키 10,25-37

(이어서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래의 글을 낭독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드립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주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의 많고도 큰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도 상관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저희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머니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아장아장 걸으면서부터 부딪힌 수없는 장애물에도  
 오늘의 제가 되었음을 돌이켜 보면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니 저의 출생부터가 기적입니다. 태어나지 못할 확률이 훨씬 큼니다.  
 태어나 살아 있음도 기적입니다.  
 주변을 맴도는 질병과 악들 틈바구니에서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지 않고도 끼니를 굶지 않았습디다.  
 길쌈을 하지 않고도 헐벗지 않았습디다.  
 주변에는 저를 사랑해 주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지들, 친구들, 선생님들, 은인들, 이웃들…….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은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지켜 주고 키워 주는 교회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수난하시고, 돌아가시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이 영원토록 지탱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돌아나서 저녁에 지는 풀처럼 지고 마는 우리 생명이  
 한낱 물거품이 아니라, 영원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파스카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삶에서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상시집』, 한국진주교주교회의, 2012, 84 ~ 85쪽 발췌

##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부활 제3주일: 상요한 장대한 신부

### ◆ 교구장 동정

- 청룡오리정(해병제2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곳: 5월 1일(주일)
-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설립 40주년, 교황청 전교회 설립 200주년과 교황청 산하 기구 승격 100주년 감사미사  
 때·곳: 5월 3일(화) 오후 3시 30분, 주교좌 명동대성당
-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 서품 및 착좌 미사  
 때·곳: 5월 2일(월) 오후 2시, 내덕동 주교좌 성당

“상제상시로 기쁨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